

특허서비스 고객중심으로 바꾼다

특허청은 고객 중심의 특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송달 장소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출원과 관련하여 전자문서의 작성과 전자출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출원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송달장소 규정의 신설, 전자문서의 암호화 과정의 생략,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한 문서 접수 등 전자출원 제도의 간편화, 전자문서 제출 기한 연장제도 도입 등이다.

송달 장소 규정 신설은 특허청의 서류를 송달 받을 때 출원인이 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송달 받을 장소를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에 아무도 없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사무실 또는 실제 거주지 등 출원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자출원 제도의 간편화를 위하여 전자문서 작성 시 암호화 과정을 생략하고,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문서의 제출기한 연장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전자출원제도의 운영을 도모하였다.

이번의 민원관련 제도 정비는 고객지향적 특허행정 구현을 위한 특허청 행정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원관련 제도의 개선 사항이 반영된 개정 특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 2월 11일부로 시행되었다.

'전자출원 무료교육' 통해 전문가 되자!

한국발명진흥회(회장 박광태)는 지식재산권의 전자출원 저변확산을 위해 오는 4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대국민 전자출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출원 교육은 무료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재권제도 인식 및 특허출원실무(기초), 전자출원보정서 및 중간서류작성 실습(심화), PCT 출원제도개요 및 전자출원 실습(PCT 전자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요령 및 전자출원실습(마드리드상표 국제전자출원) 등 4개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18층 한국발명진흥회 멀티미디어교육장에서 진행될 이번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의 전자출원교육을 참고하면 된다.

직무발명연구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한 발명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관계와 적절한 보상체계를 연구하는 '직무발명연구회'가 지난 3월 10일 설립되었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최근 직무발명이 기업경영의 요체로 부각되고 종업원과 소속기업 간에 직무발명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직무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를 넓히고 발명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연구회를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거액의 보상금청구소송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의 '천지인 사건'과 일본의 '청색 LED 사건'을 계기로 직무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출범된 직무발명연구회는,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이익 균형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및 법제도를 연구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국내외의 판례를 조사·분석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연구회 조직 내에



지난 3월 10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직무발명연구회' 출범식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하고 있는 김종갑 특허청장의 모습.

국내외의 직무발명 관련 법규나 제도를 연구할 제도분과위원회, 종업원 보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보상조사분과위원회, 그리고 판례를 조사 연구할 판례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이들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분기 1회 발표하게 되며, 연구회 전체 발표회는 별도로 연 1회 개최한다.

연구회 회원으로는 직무발명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2월말을 기준으로 1백6명이 가입되어 있다.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특허출원

은 2004년 13만9천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20%미만으로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부문의 적절한 보상체계구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 공공부문의 보상기준을 정비하기로 하고, 2002년에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공립대학교를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배분하는 성과금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바 있다.

직무발명연구회 창립과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김선경 교수는 '일본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소송이 90년대말 이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작년에 정부와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특허법에 명시된 직무발명 규정을 개정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으므로, 일본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직무발명 분쟁 발생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18회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

특허청은 올해로써 18번째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를 개최, 4월 11일까지 전국 초·중·고·대학 재학생 및 청소년의 발명 및 고안품을 대상으로 우수 발명품을 선발하여 오는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코엑스(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태평양홀에서 전시한다.

학생들의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 및 발명 창의력 계발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제7회 전국교원 발명품경진대회'와 함께 열림으로써 학생들과 교사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조선일보사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 출품될 발명 및 고안품은 아이디어의 독창성, 실용성, 경제성, 작품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선발되고, 서류심사 및 선행기술조사, 현물심사(질의·응답), 종합심사 등을 거쳐 대통령상 1명, 국무총리상 1명 등 2백여명의 수상자를 뽑을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서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전시행사 사업공고와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의 청소년 부문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하면 된다.

전국 1백20개 초·중·고교 학생발명 순회강연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김열)은 지난 3월 18일 '2005년도 학생발명 활동을 위한 전국 순회강연 실시 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올해 교육대상 학교 우선선정기준을 발명공작교실이나 학교발명반을 설치한 학교 또는 교육신청 후 1년 이상 대기 중인 학교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순회강연 계획에 따르면 올해 순회강연은 오는 4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총 1백20개 학교를 대상으로 1만 8천명의 초·중·고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잡혀있고, 이중 초등학교 70개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각각 35개교 및 15개교로 되어있다.

순회강연은 전국발명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교사나 특허기술을 많이 보유한 기업인이 트리즈(TRIZ) 등 발명관련 이론과 발명의 실례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순회강연은 2000년까지만 해도 연간 30~50회 수준으로 행해졌으나, 2001년 이후부터는 연간 1백20회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학교의 수강경쟁률은 3: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에 경쟁체제 도입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그동안 한국특허정보원(원장 유영기)에게만 위탁하여 온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을 민간업체에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업무의 품질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3일에는 (주)웹스와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

소를 선행기술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들 업체는 이달부터 기존의 한국특허정보원과 같이 선행기술조사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최근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베이스(DB) 접근이 일반화됨에 따라 선행기술 DB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한 바 있으며, 이번에 지정된 업체 중 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는 선행기술 DB를 자체 보유하지 않은 업체이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권 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특허출원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특허청

'제6회 반도체설계 공모전' 개최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우수한 반도체설계기술의 공개적 발굴·포상을 통하여 연구 분위기 조성 및 설계인력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수상작의 권리화 유도 및 기술 홍보를 통하여 효과적인 설계 기법과 우수 설계모델을 전파함으로써 반도체설계 분야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6회 반도체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디지털(Digital), 아날로그(Analog), RF 분야 등 모든 반도체설계 분야에 대해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소속의 개인 또는 팀이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에 대한 심사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총 3단계 심사·평가를 거쳐 최종 9개의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본 공모전의 수상자에 대해서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수요기업에게 배포하고, 반도체 관련 전시회 및 세미나에서 기술발표 및 제품시연 기회를 부여하는 등 기술거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팀은 4월 29일까지 신청하고, 5개월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설계 결과물을 8월 12일까지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 반도체배치설계진흥실(042-481-5971)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에 대한 시연 및 시상식은 11월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류 양식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semi)를 참조하면 되고, 인터넷카페(cafe.daum.net/kipocontest)에서도 볼 수 있다.

특허청은 최근 시스템온칩(System on a Chip)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부 및 관련업계에서도 반도체 설계분야의 R&D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시상식의 훈격을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2005년도 초, 특허출원 전년 대비 급증

'05년도 월별 예상 특허출원건수(※'04년도 특허출원 : 140,173건)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건수	12,516	12,624	16,680	13,866	12,689	13,097	14,213	16,993	25,896	171,955

특허청(청장 김종갑)에 의하면, '05년 1~2월 출원된 특허는 총 2만7천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출원된 특허 1만6천8백74건에 비해 22.7%(3천8백26건)의 매우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내·외국인 출원으로 나누어 보면, 외국인 출원은 전년 동기대비 18.6%(4천8백6건→5천6백99건)가 증가하였고, 내국인 출원은 전년 동기대비 24.3%(1만2천68건→1만5천1건)가 증가하여, 내·외국인의 출원 모두 '04년도의 출원증가율 17.4%를 넘어서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원증가를 주도한 연구 주체는 삼성전자 등 다출원 5개 기업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42.6%(1천7백94건)가 증가하여, 내국인 전체출원 증가(2천9백33건)의 61.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국내기업에 의한 출원도 28.6%(2,407건)나 증가하여 국내기업에 의한 출원 증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내·외국인, 국내기업 및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출원이 '04년도에 이미 나타난 바 있는 급격한 출원 증가율(17.4%)을 상회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경제와 시장상황에 대한 국내·외 경제 주체들의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특허권의 확보야말로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이 모든 경제 주체들 사이에 널리 인식됨에 따라, 국내 다출원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시장 선점을 위한 특허권 확보 노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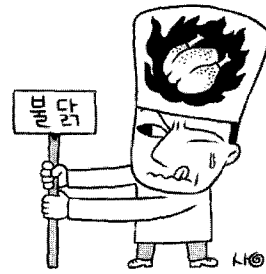
불닭 상표분쟁 불붙어, 7백여 업체 결과에 촉각

지난해 자영업 외식시장의 최대 히트상품인 '불닭'을 둘러싼 상표권 다툼이 법정에서 불타오르고 있다.

송사의 주인공은 지난 2001년 '불닭'이란 상표권을 등록한 강원도 원주시의 부원식품과 2003년 등록된 국내 최대 불닭 프랜차이즈인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홍초불닭'. 부원식품은 '불닭'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지난해 자신들의 상표권이 침해됐으며 '홍초불닭'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지난해 8월 특허심판원에 이어 올 1월 2심인 특허법원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홍초불닭 운영업체인 홍스푸드는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최종판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원식품은 1,2심 판결을 토대로 '불닭'이 들어간 상표를 쓰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30여개 프랜차이즈 본부 및 4백여개 가맹점에 보내 두 회사 간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지원 부원식품 마케팅담당 과장은 '본부에만 경고장을 보내면 가맹점에 알리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들에 일일이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면서 '정당하게 취득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1, 2심에서 패한 홍초불닭 측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반명사 '불'과 '닭'을 조합한데 불과한 부원식품이 불닭 상표를 독점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손명찬 홍스푸드 마케팅실장은 '매운 맛 소스가 핵심인 불닭을 대중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놓은 건 부원식품이 아니라 불닭 프랜차이즈 시장의 선두권 업체들'이라며 '이미 보통명사화한 이름을 가지고 로열티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특허청에는 청양불닭, 불로불닭, 화계불닭, 불닭열전 등 불닭이란 단어가 들어간 상표 및 서비스표 1백62건이 출원돼 있다. 외식 전문가들은 불닭 간판을 내건 음식점 수가 전국에 7천여개가 산재한 것으로 추산한다. 2000년을 전후해 전국 상권을 뒤덮었던 '안동찜닭'의 인기를 능가하는 셈이다.

특허전문 이철우 변호사는 '최근 미국 법원의 판례를 보면 단지 상표를 먼저 등록한 업체보다는 그 상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한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광 PCB 세계 시장, '한국이 주도'

정보화 시대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신속히 전송할 수 있는 광 PCB(Optical Printed Circuit Board)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 PCB는 구리를 이용해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기존의 전기 PCB와는 달리 기판 내에 내장된 초박막형의 광회로를 통해 노이즈가 가장 적은 광을 신호전송의 매개체로 이용하는 기술로서, 최대 2.5Gbps(bps = bit per second)의 전송 속도 한계를 갖는 전기 PCB에 비하여 수십 배 이상의 월등한 전송 속도를 나타내고, 단위면적 당 배선 집적도가 10배나 높으며, 전기 선로간의 높은 누화 및 전자파 발생이 거의 없는 등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광 PCB는 고속 대용량 신호의 전송 선로가 되는 광

선로가 포함된 인쇄회로기판으로서, 보드의 표면에 실장되는 표면방출 레이저와 같은 광원소자를 이용하여 보드 내에 형성된 광선로를 통해 다른 보드나 시스템으로 광신호를 전달하는 접속 시스템으로, 기존의 전기 PCB가 갖는 전송용량 및 신호품질의 한계를 극복하여 수백 Gbps에서 테라비트 급의 초고속 대용량 신호전송이 가능한 미래형 기술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광 PCB 관련 기술의 국내 특허출원이 2000년 이전에는 약 10여건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약 30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해진다. 앞으로도 초고속, 대용량 광통신 시스템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초고속 대용량 전송이 가능한 광 PCB 기술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 ⑩

영업비밀보다는 특허출원을 우선 고려하라!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법에 의한 보호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해외 유출 전 적발시 처벌이 어렵고 이미 유출된 경우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성 및 비밀유지성)의 입증에 곤란한 경우 많으며,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제품을 분해하여 그 제품에 사용된 기술을 알아내는 행위)에 의한 영업비밀의 획득은 적법한 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는 전략보다는 적극적인 특허획득으로 보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사례1 K사(社) 반도체 트랜지스터 기술 유출

<사실 관계>

- K사(社)는 중국의 경우 외국인 특허출원 비용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인 반면, 보호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보호하기로 결정.
- 이후 중국 업체가 2천만개 이상의 반도체 트랜지

스터를 무단으로 복제·유통함으로써 매출액 감소 및 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 막대한 손해를 입음.

<시사점>

- 영업비밀은 그것이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보호가 되므로 특허에 비하여 침해에 극히 취약한 형태의 지체권임.
- 특히 모방이 쉬운 기술은 반드시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전략이 필요함.